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통해 본 한국어 조사 부류의 통사 현상

- ‘가, 를, 는, 도’의 양립 불가능성을 중심으로 -

고동현(서울대)

1. 서론

본고는 ‘이/가’(이하 ‘가’), ‘을/를’(이하 ‘를’), ‘은/는’(이하 ‘는’), ‘도’ 등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고 자리를 대치하기만 하는 현상이 조사의 전경성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격조사라고 불리는 ‘가’와 ‘를’은 보조사라고 불리는 ‘는’과 ‘도’ 등과 양립할 수 없다. 격조사는 문장에서 사태 참여자들의 격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격조사라고 불린다. 보조사는 특수조사, 후치사, 첨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고, 각각의 구성원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격 외의 다른 의미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격조사와 보조사는 모두 명사구에 결합하는 조사라는 상위 범주에 속하면서도, 담당하는 의미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하위 범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격조사와 보조사는 양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격조사 ‘가, 를’이 ‘는’이나 ‘도’와 양립하지 못하고 서로 자리를 대치하기만 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담당 의미 및 기능이 이질적이어서 격조사와 보조사라는 서로 다른 하위 범주에 속하는데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이들이 같은 ‘슬롯’에 놓인다고 한다면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기술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많은 설명이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지만,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전경성과 전경 정보 개념을 통해 격조사와 보조사가 양립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설명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이런 설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전경성과 전경 정보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 전경이라는 개념은 그간 언어학에서 익숙하게 활용되어 온 개념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무엇이 전경으로 실현되는가에 따라 관계적 전경과 내부적 전경을 나누며, 또한 본질적인 속성인가 표면적인 현상인가에 따라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가, 를, 는, 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전경성 개념을 활용하여 이들이 결국 같은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립하기 어려운 성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논의의 배경

‘가, 를, 는, 도’가 양립할 수 없고 대치하여 쓰이기만 하는 현상에 대해 이남순(1996), 임동훈(2004) 등에서는 보조사 부류를 두 가지로 나누는 입장을 취했다. 이남순(1996)에서는 보조사 부류를 두 가지, 곧 특수조사와 첨사로 나누었다. 그리고 여러 조사가 함께 출현하는 경우, ‘마저, 보다, 부터’ 등의 특수조사는 격조사 바로 뒤에 결합하며, ‘는, 도’ 등의 첨사는 특수조사 뒤에 결합한다고 보았다. 이때 ‘가, 를’ 등의 격조사는 실현되지 못하고 반드시 생략된다고 하였다. 다만 ‘에게, 에서, 으로’ 등의 격조사는 실현될 수도 있는 것에

비해, ‘가, 를’이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임동훈(2004)에서는 특수조사 대신 후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가 ‘의미격 조사 + 후치사 + 첨사/문법격 조사’의 순서로 출현하며, 첨사와 문법격 조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도 첨사와 문법격 조사가 양립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첨사와 문법격 조사가 같은 자리에 놓인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가, 를, 는, 도’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탐구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가, 를’이 단순한 격표지가 아니라, ‘는, 도’의 의미 부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목정수(1998, 2015)에서는 ‘가, 를, 는, 도’가 한정사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어의 통사적 기능은 ‘가, 를’이 아니라 서술어의 논항 관계, 어순에 의해 드러난다. ‘가, 를, 는, 도’는 한정성과 비한정성, 주체지향 운동성과 객체지향 운동성 등에 의해 구분이 되는 동일한 하위 범주의 조사이다. 따라서 의미상 대립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정환(2012)에서는 ‘가, 를’이 의미역 조사와 한정 보조사가 융합된, 혹은 미분화된 상태라고 보았다. ‘는, 도’ 등과 양립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가, 를’을 격 부여자나 격표지로 보면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의미역 조사 기능이 강해지거나 한정 보조사 기능이 강해진다고 본다면, ‘가, 를’이 지니는 의미역 부여의 기능과 ‘는, 도’ 등과의 양립 불가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상의 설명만으로는 ‘가, 를, 는, 도’가 양립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본 첫 번째 이유는, ‘가, 를’은 여전히 문법 기능 표지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가, 를’은 발화에서 생략도 가능하고, 주어, 목적어 등 전형적인 문법 기능 표지에서 벗어난 용법이 있으며, 또 정보구조나 한정성 등에 따라 ‘는’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절에서 ‘가, 를’이 출현한 상황이라면, 그 선행 명사구는 각각 문법 기능이 주어와 목적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는 모절에서도 그렇지만, 내포절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가, 를}의 관계에서는 발화 실수나 명사구가 아닌 요소에 결합하는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개 문장 내에서의 문법 기능을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가, 는, 도}는 문법 기능과 무관하게 교체가 가능하고, {를, 는, 도}도 마찬가지로 문법 기능과 무관하게 교체가 가능한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도 ‘가’와 ‘를’의 관계에서는 문법 기능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거나, 혹은 문법 기능을 연상시키는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¹⁾

두 번째 이유는 ‘는, 도’만이 아니라 다른 보조사도 ‘가, 를’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를 모두 포괄하려면 이론적 기술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주로 {가/를, 는, 도}의 출현 제약이지만, 실제로는 ‘(이)나, (이)야, 조차, 마저’ 등 여러 보조사에서 출현 제약이 관찰된다. 또한 ‘만’, ‘까지’처럼 보통은 ‘가, 를’과 함께 쓰일 수 있는 보조사조차도, 어떤 의미 기능으로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출현 제약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을 모두 정밀하게 포괄하려면 이론에 대한 기술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이론의 정밀함을 위해서는 복잡함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더 쉬운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 좋은 설명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이유로 새로운 설명 수단으로써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도입하고자 한다. 기존 언어학계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개념인 전경을 보다 체계화하면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가/를, 는, 도}의 양립 불가능성은 이들의 전경성이 동일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간단히 요약하면, {가/를, 는, 도}가 여러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전경성을 부여하는 의미는 동일하며, 이 때문에 이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설명은 {가/를, 는, 도}뿐만 아니라, 확장하여 다른 조사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양적 연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1) 이상의 이유로 본고의 이하 부분에서는 ‘가, 를, 는, 도’에 대해 집합적으로 언급할 때 {가/를, 는, 도}처럼 표시하고자 한다.

3. 전경성과 전경 정보

본격적으로 {가/를, 는, 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전경성과 전경 정보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경(foreground)과 배경(background)은 이미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활용되는 개념이기에 부가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경은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가 주목하는 것이고, 배경은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대화 참여자들이 모든 언어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는 없으므로, 그중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것이 전경이 되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밀려난다. 즉 전경만 정의하면 배경은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것이다. 박재연(2007:76-78)은 전경 정보란 ‘화자가 발화에서 가지는 일차적인 의사소통 의도와 직접 연관되는 정보’로 정의하였다. 여기서의 일차적 의사소통 의도란 발화나 언어 표현을 사용한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한 화자의 의도로, 곧 화자가 주로 전달하고자 의도한 내용이 전경 정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로도 한국어의 여러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주절이 종속절이나 내포절에 비해 전경이라는 사실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지 고려하는 보다 엄밀하면서도 실용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3장에서는 전경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무엇이 전경이 되는가에 따라 전경 개념을 관계적 전경과 내부적 전경으로 나뉜다. 또한 언어 요소나 구문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면 전경성, 실제로 정보로서 읽히는 것이라면 전경 정보로 나뉘는 것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경성을 실제로 판단하기 위한 검증법도 확인하고자 한다.

3.1. 관계적 전경과 내부적 전경

어느 부분이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경으로 부각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전경 개념이 있다. 하나는 관계적 전경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 전경이다.

▶ 관계적 전경

먼저 관계적 전경은 어떤 언어 요소가 담화 속에서 다른 언어 요소에 비해 주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언어 요소 하나가 다른 언어 요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전경으로 부각되는 것이므로, 통합 관계 전경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관계적 전경은 통사적 위치나 다른 언어 요소와의 상대적 관계, 구문 내의 자리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적 전경에 대해서는 Talmy(2000)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Talmy(2000)은 문장 속에서 전경-배경(figure-ground) 관계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문장의 적절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 관찰을 통해 밝혀냈다.

(1) 가. The bike is near the house.

나. ?The house is near the bike. (Talmy 2000:314)

(1)의 위치 구문에서는 주어 자리에 오는 개체가 전경으로 부각되고, 이 개체가 놓인 위치의 기준은 배경이 된다. 이때 the bike와 the house 중 어느 것이 전경이고 어느 것이 배경인가에 따라 문장의 적절성이 달라진다. The bike가 주어인 (1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the house가 주어인 (1나)는 어딘가 받아들이기 어렵게 느껴진다. Talmy(2000)은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움직이거나, 개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개체가 전경이 되며, 이것의 변화가 관심이 대상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배경은 참조의 대상이 되는 개체로, 배경을

통해 전경의 움직임을 특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Talmy 2000:312). 다만 여기서 전경에 해당하는 개체가 반드시 물리적인 이동이나 위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리적으로 이동이나 위치의 사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면 전경과 배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Talmy(2000)은 문장 성분 간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구와 구, 혹은 절과 절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전경-배경의 구별이 성립함을 보였다.

(2) 가. His exploding occurred after his touching the button.

나. His touching the button occurred before his exploding. (Talmy 2000:321)

(2)에서는 주어 명사구의 사건이 전경으로 부각된다. 전경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전치사구의 사건은 배경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무엇이 전경인가에 따라 주목을 받는 사건이 달라진다. (2가)에서는 폭발 사건이 주된 관심이지만, (2나)에서는 단추를 건드린 사건이 주된 관심이 된다. 이처럼 어떤 언어 요소가 전경이 되고, 다른 언어 요소들은 배경이 될 때, 즉 관계적 전경이 무엇인가에 따라, 문장의 적절성이나 화청자의 주된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적 전경과 배경의 차이는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Talmy(2000)의 예를 참고하여 한국어를 관찰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가. 자전거가 우리 집 앞에 있어.

나. ?우리 집이 자전거 뒤에 있어.

(4) 가. 철수는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

나. 철수는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어.

(3)은 (1)에 대응하는 예문이다. 무엇이 주어, 곧 전경인가에 따라 문장의 적절성이 달라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움직이기 쉬운 개체인 ‘자전거’가 주어인 (3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움직이기 어려운 ‘우리 집’이 주어인 (3나)는 비교적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4)에서는 무엇이 주절, 곧 전경인가에 따라 주목되는 부분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철수에 대한 인상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4가)에서는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사건이 주절로 제시된다. 철수는 유튜브 최신 콘텐츠를 잘 활용하여 한국어를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으로 인식되기 쉽다. 반대로 (4나)의 철수는 주절의 유튜브를 보는 사건이 주목되어, 공부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으로 인식되기 쉽다.

▶ 내부적 전경

관계적 전경은 언어 요소 간의 관계 속에서 한 언어 요소가 부각되는 것이었다면, 내부적 전경은 어떤 언어 요소가 동시에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나 기능 중에서 한 가지가 주목받는 것을 가리킨다. 언어 요소들은 한 가지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Langacker(2008:62-65)에 따르면 언어 표현이 나타내는 것은 immediate scope와 maximal scope로 나뉜다. 언어 표현을 보고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요소가 immediate scope가 되고,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요소는 maximal scope이다. 예컨대 ‘elbow’라는 단어를 보면 팔의 어떤 부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쉽게 떠오르는 개념인 ‘팔’이 immediate scope가 되고, ‘신체’처럼 좀 더 범위를 넓혀 생각해야 닿을 수 있는 개념은 maximal scope가 된다.²⁾ 즉 어떤 언어 요소를 보고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2) Langacker(2008)의 immediate scope와 maximal scope가 즉시 전경과 배경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immediate scope보다 한 단계 더 직접적으로 생각되는 개념, 곧 ‘elbow’를 보고 떠오른 팔꿈치 부위 그 자체가 전경이 될 것이고, 팔부터 신체까지

때오르는 의미, 곧 전경이 있을 것이고, 관련은 있지만 간접적으로만 생각이 닿는 의미, 곧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ruse(2000:58)는 내부적 전경의 조금 더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영어의 어휘 ‘blonde’는 [FAIR-HAIR], [FEMALE], [HUMAN BEING]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들 의미가 동등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It wasn’t a blonde that I saw’라는 문장은 화자가 본 대상이 [FAIR-HAIR]이 아니었다는 뜻이지, 여성이나 인간을 본 것이 아님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여러 의미 중 [FAIR-HAIR]가 전경이고 나머지는 배경이기 때문에, 전경에 해당하는 의미가 먼저 문장의 의미를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한국어 어휘 ‘총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총각’은 [UNMARRIED], [MALE], [HUMAN BEING]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들 중 전경이 되는 것은 [UNMARRIED] 정도이다.³⁾

박재연(2007)은 Cruse(2000)의 예를 활용하여, 한국어 연결 어미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구분하였다. 연결 어미들은 각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상적인 의미도 나타낸다. 예컨대 ‘-(으)면서, -느라고’는 미완료적인 의미를, ‘-고서, -자마자’는 완료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결 어미는 상 형식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 (5) A: 너 이 책 점심 먹고 나서 보았니?
B: 아니, 점심 먹으면서. (박재연 2007:89)
- (6) A: 영희는 논문을 다 썼니?
B: *아직 쓰면서. (박재연 2007:88)

‘-(으)면서’는 미완료의 상적 의미와 동시(同時) 관계의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이 중에서 ‘대답의 초점’이 되는 것은 동시성의 의미뿐이다. 여기서 대답의 초점이란 청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의사소통 의도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5, 6)에서 A의 질문에 대해 B가 알려주려는 정보가 동시성의 의미라면 ‘-(으)면서’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미완료의 의미라면 ‘-(으)면서’를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선행행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의미가 전경 의미가 되고, 선행행절이 나타내는 사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배경 의미일 뿐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3.2. 전경성과 전경 정보

한편, 어떤 언어 요소나 그 의미 및 기능이 전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본질적인 속성과, 실제 발화에서 전경으로 나타나는 일은 구분된다. 전경이라는 것은 화청자가 주목하는 것이므로, 실제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의도나 청자의 해석에 의해 무엇에 주목하는가가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경도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를 전경성, 후자를 전경 정보라고 부르고, 구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어떤 언어 요소나 그 의미 및 기능은 전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본질적인 속성상 전경으로 부각될 수 있는 성질을 ‘전경성’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총각’의 의미에서는 [MALE], [HUMAN BEING]보다는 [UNMARRIED]가 내부적 전경으로 부각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언어 요소의 용법이 확장되면, 즉 다의어가 되거나 문법화를 겪으면, 전경으로 드러나기 쉬운 요소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손’은 원형적으로 ‘사람의 팔 끝에 달려 있는 신체 기관’ 정도를 의미하며, 이것이

확장하며 생각할 수 있는 부위들은 배경이 될 것이다. Langacker(2008)은 그 외에도 foreground-background, trajector-landmark 등 전경-배경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들은 본고의 용어로는 관계적 전경에 가깝다.
3) 최근의 용법에서는 [UNMARRIED]보다도 [MALE]이 전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느껴진다. 이는 후술할 ‘손’의 사례와 유사한, 전경성의 확장 및 이동 사례이다. 언어 요소가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부적 전경도 변화할 수 있다.

전경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경으로 드러나기 쉽다. 그러나 ‘손’의 용법은 확장을 꺾어 ‘추수철이 되니 농가에 손이 모자란다’와 같은 문장에서도 비유적인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쓰인다. ‘손’이 다의어로서의 확고한 쓰임을 얻었기 때문에, ‘노동력’의 의미도 어느 정도 전경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강아지 손이 예쁘네’와 같은 문장은 다소 비유적으로 느껴진다.⁴⁾ 이는 ‘네 발 동물의 앞다리’라는 의미가 ‘손’이 지니는 여러 의미 중에서 전경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아지 손이 예쁘네’에서 실제로 전경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네 발 동물의 앞다리’이다. 즉 본질적인 속성상 전경성은 낮으나, 화자가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발화에 한정해서는 내부적 전경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 담화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전경 정보’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경성이 가장 큰 요소가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전경성이 낮은 요소가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특정한 맥락이 필요하거나, 다소간의 유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앞서 예시하였던 (3)의 문장을 아래 다시 가져와 살펴보겠다.

- (3) 가. 자전거가 우리 집 앞에 있어.
나. ?우리 집이 자전거 뒤에 있어.

일반적으로 (3가)가 (3나)보다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자전거’가 ‘우리 집’에 비해 관계적 전경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경 정보를 표현하는 주절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3나)를 발화하고 수용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별한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3가)보다 (3나)가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혹은 시적인 묘사나 기타 유표적인 효과를 위해 (3나)를 발화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집’이 매우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3나)가 더 효과적이다. 이처럼 전경성, 즉 언어 요소가 지니고 있는 속성상으로는 (3가)가 자연스럽지만, (3나)의 발화를 통해 ‘우리 집’을 전경 정보로 제시하는 일도 가능하다.

한편 청자가 이를 해석할 때 전경 정보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요소를 전경 정보로 읽는 경우도 존재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앞서 예시한 (4가)를 아래에 다시 가져온다.

- (4) 가. 철수는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어.

(4가)에서는 주절에 나타난 사건인 ‘철수가 한국어 문법을 공부함’이 전경 정보인 것이 자연스럽다. 즉 ‘철수’를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훌륭한 학생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 하지만 담화 맥락에 따라 ‘유튜브를 보다’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철수는 뭘 하든 유튜브를 봐.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아주 심각한 중독이야’와 같은 담화가 선행되었다면, (4가)에서 철수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행 담화와 무관하게 청자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철수의 유튜브 시청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화자는 ‘철수가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훌륭한 학생임에 주목하기를 바랬지만, 청자는 ‘철수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임에 주목하여, 이것을 전경 정보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의 의도에 따라 전경성과 전경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청자가 실제로 주목하는 것이 화자의 의도와 다르기에 전경성과 전경 정보의 구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청자가 주목하기를 화자가 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경성이 높은 것이고, ‘청자가 실제로 주목하는 것’이 이것과 일치하는

4) 물론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앞다리를 내밀기를 기대하며 ‘손’과 같은 명령어를 자주 발화하는 사람에게는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강아지 손이 예쁘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손’이 지니는 ‘네 발 동물의 앞다리’라는 의미도 더욱 전경성을 얻어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경우가 자연스럽고 빈도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사적 규칙과 어휘 의미에서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만큼 일치하지는 않는다. 통사적 규칙과 어휘 의미, 곧 넓은 의미에서의 문법은, 명제 수준에서 문장이 표상하는 사태(situation)에 대해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이해를 거의 일치하게 만든다. 그러나 화청자의 주목은 그만큼 일치하기는 어렵다. 명제에서 화청자 각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즉 문법은 화청자의 발화 생산과 수용을 강하게 제약하는 것에 비해, 전경성을 나타내는 형식은 얼마든지 변칙이나 이탈이 가능한 수준에서, 화청자가 느슨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느슨한 협력이 본질적인 속성인 전경성과 표면적인 현상인 전경 정보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질적인 속성인 전경성은 표면적인 현상인 전경 정보로 나타나기 쉬운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담화에서 어떤 언어 요소 혹은 그 의미나 기능이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 가능한 것만으로는 ‘전경성’을 지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경 정보로 나타난다고 인식되기 쉬운 것이 귀납적으로 ‘전경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전경성이 높은 요소가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일이 가장 자연스러우므로, 가장 쉽게, 가장 자주 전경 정보로 읽히는 것이 바로 전경성이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3. 전경의 판단 기준

전경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경 정보로 나타나기 쉬운지를 판별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 판별의 기준으로 ‘논점성(at-issueness)’ 판단을 참고하고자 한다. 논점성 판단은 전경 정보 판단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직관 판단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고, 실험적인 양적 검사도 가능하다. 전경 정보로 나타나기 쉬운 것은 빈도상으로 가장 높게 전경 정보로 인식된다. 따라서 전경성을 객관화 및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여럿 수집할 필요가 있다. 여러 번의 검사 결과 가장 빈번하게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경성을 지니는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논점성 판단은 양적 검증의 적절한 기준이 된다.

논점성 판단을 전경 판단의 기준으로 도입하기 위해, 먼저 논점성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Koev(2018:1)에 따르면, 논점(at-issue)이란 문장의 의미에서 요점(main point)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크게 세 종류, 곧 Q-논점, P-논점, C-논점으로 구분된다. 먼저 Q-논점성은 QUD(Question under discussion)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서 선행 발화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에, 관련이 있는 응답을 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P-논점성은 대화 참여자들의 공통 배경(common ground)을 갱신하는 제안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즉 이전까지의 맥락에서 한 번도 인정되지도(accepted) 부인되지도(rejected) 않은 새로운 제안이 P-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논점성은 담화 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응집성(coherence)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결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들 중 Q-논점과 C-논점은 본고에서 상정하는 전경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Q-논점은 backward-looking, 즉 선행 담화와 관련이 깊다. 선행 담화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관련적인 응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고의 전경 개념은 상정되는 선행 담화 없이도 언어 요소나 구문 자체에서 전경 정보가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히 ‘총각’이라고만 해도 전경 정보인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가 구별된다. 또한 문장 성분이나 구문의 특정 부분도 그 자체로 전경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태가 주절을 통해 표상되지만 해도, 다른 사태에 비해 전경 정보가 된다. 따라서 선행 담화를 통해 정의되어야 하는 Q-논점과 본고의 전경 개념은 조금 거리가 있다. 한편 C-논점은 담화의 생산자에 주목하는 측면이 있다. 즉 담화를 이어나갈 때 다음 담화가 이전 담화의 어느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판단한다. 따라서 화자만의 단독 발화 상황이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전경을 논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화청자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본고의 전경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P-논점은 대화 참여자들의 주목을 나타내는 전경 정보와 매우 가까운 개념이다. P-논점은 독립적인 언어 형식에서 성립 가능하다.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집합인 공통 배경을 갱신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화자는 공통 배경을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발화하고, 청자는 화자의 발화 중 어느 부분을 주목하여 인정하거나 부인할지 판단한다. 따라서 화청자 모두가 개입하며,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본고의 전경 정보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P-논점은 그 판별의 방법으로 제시된 검증법인 찬성/반대 검증법은 적용 가능한 범위가 넓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발화에서 주목되는 언어 요소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써 그간 제시되어 온 것들과 유사하다. 연구자의 직관 판단도 시도할 수 있고, 양적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도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7) A: My friend Sophie, a classical violinist, performed a piece by Mozart.
 B₁: No, she didn't.
 B₂: *No, she isn't. (Koev 2018:6; Syrett and Koev 2015:541 참고)

(7)의 담화에서는 A의 발화와 이에 대한 B의 반대가 이어진다. 그리고 B가 A 발화 중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즉 B₁처럼 'Sophie'가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한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B₂처럼 'Sophie'가 'a classical violinist'인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다시 말해서 A의 발화에서 논점은 'Sophie'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했다는 주절의 사건이지, 'Sophie'가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동격 내포절의 상태가 아니다.

또한 Erteschik-Shir and Lappin(1983)에서도 비슷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청자의 주목을 끌고자 화자가 의도한 부분이 지니는 우세(dominance)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입한 검증법은 '거짓말 테스트(lie test)'로,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8) A₁: John gave a book to Mary.
 B₁: That's a lie - She wasn't at home.
 A₂: John gave Mary a book
 B₂: *That's a lie - She wasn't at home.

영어의 'give' 구문은 크게 전치사를 통해 피수여자를 표현하는 A₁과 같은 구조와, 간접목적어로 피수여자를 표현하는 A₂와 같은 구조가 가능하다. 이때 A₁에서는 'Mary'에 주목하여 '그건 거짓말이야' 뒤에 B₁처럼 발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B₂에서는 'Mary'에 주목할 수 없다. 이를 통해 A₁에서는 'Mary'가 우세할 수 있지만, A₂에서는 우세할 수 없음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용어로는, 전치사 피수여자 구문에서는 피수여자가 전경 정보로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간접목적어 피수여자 구문에서는 피수여자가 전경 정보로 나타나기 어렵다. 즉 두 구문에서 전경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P-논점은 화자와 청자의 느슨한 협력과 정보 갱신을 통해 정의된다는 점에서, 본고의 전경 개념과 유사하다. 또한 그 방법론인 찬성/반대 검증법 역시 활용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P-논점을 참고하여, 찬성/반대 검증법을 통해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판단하고자 한다. 어떤 발화에서 관계적 혹은 내부적 전경성이 높은 요소는, 관계적/내부적 전경 정보로 나타나기 쉽고, 이는 찬성/반대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과 연결된다. 따라서 쉽게 찬성/반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곧 전경성이 높은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이라면 연구자의 직관만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양적인 조사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객관성과 일반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고에서도 찬성/반대 검증법을 통해 {가/를, 는, 도}가 어느 의미 기능을 전경성이 높은 요소로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4. {가/를, 는, 도}의 전경성에 대한 검증

이 장에서는 앞서 정리한 검증법을 바탕으로, {가/를, 는, 도}가 어떤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한국어의 조사는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데, 그중에서 내부적 전경성을 어떤 의미에 부여하는지가 조사마다 다르다. 그런데 {가/를, 는, 도}는 동일한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본고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동일한 전경성이 이들의 양립 불가능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4.1. 선행 연구 및 배경

선행 연구에서도 찬성/반대 검증법과 비슷한 검증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 김정민(2016)에서는 언어 요소에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가 있다고 보고, 조사 ‘만’과 ‘도’의 일차 의미와 이차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만’은 일차 의미가 고정함축이고, 이차 의미가 단언인 데에 비해, ‘도’는 반대로 일차 의미가 단언, 이차 의미가 고정함축이라고 보았다.⁵⁾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 활용된 검증법은 아래와 같다.

(9) A. 민수만 파티에 갔어.

B₁.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수 안 갔어. / 영수도 갔어.

B₂. 그래, 맞아. #민수 갔어. / 민수 외에는 아무도 안 갔어. (김정민 2016:138-139)

(10) A. 민수도 파티에 갔어.

B₁. 아니야, 그렇지 않아. 민수 안 갔어. / ?민수만 갔어.

B₂. 그래, 맞아. 민수 갔어. / #민수 외에 누군가가 파티에 갔어. (김정민 2016:139)

(9)의 보조사 ‘만’은 ‘민수’ 외에 파티에 간 사람이 있다는 의미와, ‘민수’가 파티에 갔다는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그런데 이에 대해 (9B₁)에서처럼 ‘민수’ 외에 파티에 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9B₂)에서처럼 ‘민수’가 파티에 갔다는 의미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즉 (9A) 발화의 주안점은 ‘민수’ 혼자 파티에 갔음에 있다. 한편 (10)의 보조사 ‘도’는 ‘민수’ 외의 누군가 파티에 갔다는 것과, ‘민수’가 파티에 갔다는 의미를 동시에 나타낸다. 그런데 (9)와는 반대로, ‘민수’가 파티에 갔다는 의미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민수’ 외의 누군가 파티에 갔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긍정하기는 어렵다.

고동현(2020)에서는 보조사가 나타내는 의미에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전경 의미가 동일한 경우 중첩으로 나타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조사는 대안집합적 의미와 비대안집합적 의미, 두 층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대안집합적 의미란 보조사의 선행 성분을 초점으로 제시하고,

5) 김정민(2016)은 본래 ‘만’의 일차 의미, ‘도’의 이차 의미가 전제인지 고정함축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고정함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이것이 전제인지 고정함축인지 밝히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자세한 논증은 생략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김정민(2016)의 ‘만’의 일차 의미와 ‘도’의 이차 의미는 후술할 대안집합적 의미라고 정리하였다. 이는 보조사가 지니는 의미의 본질이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그 자매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면서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항목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 Yang(1973), 홍사만(1986), 이남순(1996), 황화상(2003), 임동훈(2015), 박진호(2015), 고동현(2020) 등에 따른 것이다.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자매항들의 집합인 대안집합을 상정하여, 여기에 초점과 자매항 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의미이다. 반대로 비대안집합적 의미란 굳이 보조사가 아니어도 나타날 수 있는 의미, 곧 격조사나 무표지가 쓰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제의 의미이다. 그리고 Erteschik-Shir & Lappin(1983), 박재연(2007), 김정민(2016)의 검증법을 종합한 부정-수정 검증법을 활용하여, 보조사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를 변별하였다. 그 결과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보조사는 격조사와 중첩될 수 있지만,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의미로 나타내는 보조사는 그럴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이상의 검증법은 본고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찬성/반대 검증법과 유사하다. 선행 발화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한 뒤, 어느 부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한다. 이것이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것이 쉬우므로, 전경성도 여기에 부여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알아내고자 하는 것은 각 조사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내부적 전경 정보로 나타내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관계적 전경성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사는 어휘적 기원이나 의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관계적 전경성을 다양하게 가진다. 예컨대 ‘만’과 같은 보조사는 관계적 전경성이 높다고 생각된다.⁶⁾ 청자는 ‘만’이 결합한 ‘선행 명사구 + 조사’에 쉽게 주목할 수 있고, 그 내부적 전경성에 대한 판단도 다른 요소의 개입을 받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는’과 같은 보조사는 상대적으로 관계적 전경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자가 다른 요소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전경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직관 판단 및 실험을 할 경우, 다른 언어 요소에 주목하지 않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선행 명사구 + 조사’에 주목할 수 있는 예문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4.2. {가/를, 는, 도}에 대한 직관 판단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직관 판단을 통해 {가/를, 는, 도}가 어느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 ‘는’과 함께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만’에 대해서도 직관 판단을 진행했다. 한편 ‘도’와 비슷하게 대안집합을 상정하고, 선행 명사구가 지시하는 개체 외에도 명제 속에서 성립하는 자매항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까지’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도’와 ‘까지’의 자연스러운 비교를 위해, 척도적인 대안집합을 상정할 수 있는 선행 명사구를 채택하였다.

이상의 조건하에, 직관 판단이 실시되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선행 명사구 + 조사’의 조합이 관계적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환경에서, 어느 의미가 내부적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였다.

- (11) A. 우리 반 국어 3등인 영우가 상을 받았어.
B. 아니야, 영우가 상 안 받았어. / 맞아, 영우가 상 받고 좋아하더라.
- (12) A. 우리 반 국어 3등인 영우는 상을 받았어.
B₁. 아니야, 영우가 상 안 받았어. / 맞아, 영우가 상 받고 좋아하더라.
B₂. *아니야, 준호도 상을 받았어. / *맞아, 영우 말고는 아무도 상을 안 받았어.
- (12') A. 우리 반 국어 3등인 영우만 상을 받았어.
B₁. ?아니야, 영우가 상 안 받았어. / ?맞아, 영우가 상 받고 좋아하더라.
B₂. 아니야, 준호도 상을 받았어. / 맞아, 영우 말고는 아무도 상을 안 받았어.
- (13) A. 우리 반 국어 3등인 영우도 상을 받았어.

6)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본고에서는 우선 ‘만, 까지, 부터’ 등 기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보조사들은 그렇지 않은 ‘는, 도’ 등의 보조사에 비해 비교적 관계적 전경성이 높다고 간주하고자 한다.

- B1. 아니야, 영우가 상 안 받았어. / 맞아, 영우가 상 받고 좋아하더라.
 B2. [?]아니야, 1, 2등은 상을 안 받았어. / [?]맞아, 국어 1, 2등도 상 받았어.
- (13) A. 우리 반 국어 3등인 영우까지 상을 받았어.
 B1. [?]아니야, 영우가 상 안 받았어. / [?]맞아, 영우가 상 받고 좋아하더라.
 B2. 아니야, 1, 2등은 상을 안 받았어. / 맞아, 국어 1, 2등도 상 받았어.
- (14) A. 선생님께서 우리 반 영어 3등인 민우를 칭찬하셨어.
 B. 아니야,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지 않으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셨지.
- (15) A. 선생님께서 우리 반 영어 3등인 민우는 칭찬하셨어.
 B1. 아니야,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지 않으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셨지.
 B2. *아니야, 선생님께서 수연이도 칭찬하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민우 말고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셨지.
- (15') A. 선생님께서 우리 반 영어 3등인 민우만 칭찬하셨어.
 B1. [?]아니야,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지 않으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셨지.
 B2. 아니야, 선생님께서 수연이도 칭찬하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민우 말고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셨지.
- (16) A. 선생님께서 우리 반 영어 3등인 민우도 칭찬하셨어.
 B1. 아니야,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지 않으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셨지.
 B2. *아니야, 선생님께서 영어 1, 2등은 칭찬하지 않으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영어 1, 2등도 칭찬하셨지.
- (16') A. 선생님께서 우리 반 영어 3등인 민우까지 칭찬하셨어.
 B1. [?]아니야,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지 않으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민우를 칭찬하셨지.
 B2. 아니야, 선생님께서 영어 1, 2등은 칭찬하지 않으셨어. / 맞아, 선생님께서 영어 1, 2등도 칭찬하셨지.

이상의 직관 판단에서, {가/를, 는, 도}는 동일한 의미를 전경 정보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동일한 전경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만, 까지’ 등의 보조사에서는 비대안집합적 의미(B₁)와 대안집합적 의미(B₂) 모두 찬성/반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소하나마 대안집합적 의미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것이 자주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를, 는, 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안집합적 의미(B₂)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비대안집합적 의미(B₁)에 대해 찬성/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한편 ‘만, 까지’도 ‘가/를, 는, 도’와 전경성 부여의 양상이 같아지는 경우, 이들과 양립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만’은 일반적으로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정보로 내세운다. 그러나 조건절에 쓰이는 경우 충분조건 의미처럼 활용되어서, 전건이 나타내는 사태가 일어나면 후건이 나타내는 사태가 일어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격조사와 양립하지 못하는데, 이때 ‘만’의 전경성은 다른 의미에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7) A: 철수만(*이) 오면 시험이 시작돼.
 B1: 아니야, 철수가 오지 않아도 시험이 시작돼. / 맞아, 철수가 오면 시험이 시작돼.
 B2: *아니야, 철수랑 영희가 같이 와도 시험이 시작돼. / *맞아, 철수 말고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아야 시험이 시작돼.

(17) A: 철수만이 오면 시험이 시작돼.

B₁: *아니야, 철수가 오지 않아도 시험이 시작돼. / *맞아, 철수가 오면 시험이 시작돼.

B₂: 아니야, 철수랑 영희가 같이 와도 시험이 시작돼. / 맞아, 철수 말고 다른 사람이 오지 않아야 시험이 시작돼.

(17)은 조건절에 쓰인 ‘만’은 충분조건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 (17B₁)에서처럼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찬성/반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17B₂)처럼 대안집합적 의미를 찬성/반대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즉 격조사와 동일한 전경성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전경성의 동질성이 두 조사의 양립 불가능성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만’은 조건절에 쓰이더라도, (17)처럼 충분조건 의미의 의미가 아니라 [대조]의 대안집합적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격조사와 다른 전경성을 지니고, 따라서 양립 가능성이 생김을 확인할 수 있다.

‘까지’는 원래 척도적인 대안집합을 상징하고 이들 가운데 범위의 한계를 설정한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차, 마저’와 유사하게 의외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비대안집합적 의미에 전경성을 상대적으로 더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격조사와 같은 전경성을 지니게 되므로, 격조사와의 양립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18) A: 문제가 왜 이렇게 쉬워? 초등학교까지(*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B₁: 아니야, 초등학교는 못 풀지. / 맞아, 초등학교가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네.

B₂: *아니야, 중학교까지 풀 수 있어. / *맞아, 성인부터 초등학교까지 풀 수 있지.

‘까지’가 척도에 따라 대안집합을 상징하고, 이 가운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대안집합적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때는 격조사와 양립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8)에서처럼 선행 명사구가 지시하는 개체가 명제의 사태에서 성립할 것으로 쉽게 예상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격조사와의 양립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이는 ‘까지’가 지니는 내부적 전경성의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양적 연구를 위한 예비 실험

이상에서 본 것 같이 연구자의 직관에 따른 전경성 판단도 가능하지만, 실험적인 방법론으로 검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양적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양적 연구를 수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점검하고, 연구의 가능성을 예측해보기 위해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들을 다 고려하지는 않았고, 3가지 유형의 조사, 곧 격조사, ‘는’, ‘만’을 실험하여 비교해 보았다. 피험자로는 만 20대 비전공자 8인을 선정하였다. 실험 내용은 짧은 대화 속에서 마지막 발화에 대한 부정으로 적절한 내용을 고르는 것이다. 앞서 직관 판단에서 고려했던 사항들을 고려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여 실험 문장을 선정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험자는 12개의 목표 문항에 응답을 한다. 여기에 누구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filler 문항 6개가 추가되었다. 목표 문항은 3가지 조건에서 경우의 수 3×2×2를 하여 만들어졌다. 즉 실험 대상인 격조사, ‘는’, ‘만’이 대상이 되고(3가지 경우의 수), 문두 조건과 문중 조건이 고려되었으며(2가지 경우의 수), 또한 대안집합을 맥락에서 미리 제시받았을 때, 대안집합적인 [대조]의 의미 기능이 강화되어 전경 정보로 나타나는 의미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안집합 제시와 대안집합 비제시 조건을 추가하였다(2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만들어진 예비 실험의 문항을 대표하여 하나의 문항을 아래와 같이 예시한다. 아래의 예문은

문두 & 대안집합 제시 조건에 조사 유형 3가지를 교체한 것이다. 피험자들은 이러한 3가지 조사 중 하나의 조사가 선택된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하며, 각 피험자 8인은 임의 추출된 조사의 문항을 마주하게 된다.

(19) A: 지난 주에 진영이랑 민수랑 은희 중국어 시험 쳤는데, 통과했어?

B: 아, 진영이{가/는/만} 통과했대.

C: 아니야, _____.

- 1) 은희도 통과했어.
- 2) 진영이 탈락했어.

피험자들은 실험 방식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은 뒤, 위와 같은 문항에 응답을 하였다. 8인이 격조사, ‘는’, ‘만’에 대해 각각 4번씩 응답을 한 것인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정보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정보
격조사	6	26
‘는’	6	26
‘만’	26	6

격조사와 ‘는’에서 비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정보로 생각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높게 나왔다. 즉 격조사와 ‘는’은 모두 비대안집합적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만’에서는 [대조]의 대안집합적 의미를 전경 정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즉 ‘만’은 대안집합적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상정했던 나머지 경우의 수에서는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먼저 문두에 위치하는지, 문중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는 큰 영향이 없었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정보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정보
문두의 격조사	4	12
문중의 격조사	2	14
문두의 ‘는’	1	15
문중의 ‘는’	5	11
문두의 ‘만’	13	3
문중의 ‘만’	13	3

문중의 ‘는’은 문두의 ‘는’에 비해 대안집합적 의미의 전경성이 조금 올라간 것으로 분석되지만, 여전히 비대안집합적 의미의 전경성이 훨씬 높았다. 다른 조사에서는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대안집합을 미리 제시하는가의 여부도 조사의 전경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정보	비대안집합적 의미가 전경 정보
대안집합 제시 않은 격조사	2	4
대안집합 제시한 격조사	4	12
대안집합 제시 않은 ‘는’	3	13
대안집합 제시한 ‘는’	3	13
대안집합 제시 않은 ‘만’	14	2
대안집합 제시한 ‘만’	12	4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는’은 격조사와 동일한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하고, ‘만’은 그렇지 않다. 즉 ‘가, 를’과 ‘는’은 동일한 의미에 전경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동일한 전경성이 이들의 양립 불가능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아직 예비 실험 단계였으므로 향후 정밀한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양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찰 결과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므로, 본 실험에 들어가도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다.

5. 결론

이 글은 {가/를, 는, 도}가 양립할 수 없고 대치하여 쓰이기만 하는 현상이 조사의 전경성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전경성을 지니는 의미 기능이 동일하다는 점이 이들을 하나의 슬롯에 배치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즉 이들 조사는 사태 참여자를 표시하는 기능에 전경성을 부여하는, 비슷한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씩 각자의 의미 기능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 정리한 전경 개념은 격조사와 일부 보조사의 양립 불가능성이라는 난제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본고의 전경성과 전경 정보 개념은 조사의 출현 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주절은 종속절이나 내포절에 비해 관계적 전경성이 높지만, 인용절은 반대로 주절에 비해 전경성이 높다. 이러한 차이는 정형적(*finite*) 서술어, 주절 인용동사와의 축약 등 인용절만이 일으키는 특수한 현상과 모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어휘 변화나 문법화 등은 내부적 전경성이 변화하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떤 언어 요소가 변화를 겪고 있다면, 이 언어 요소에서는 복수의 의미에서 내부적 전경성을 감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어휘화나 문법화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의 차이에도 전경성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수식어-피수식어 관계에서는 수식어 쪽이 관계적 전경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제한적 관계절은 이러한 일반적 경향을 따르지만, 비제한적 관계절은 반대로 피수식어에 전경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통사·의미적인 차이가 발생함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처럼 전경성과 전경 정보를 통해 {가/를, 는, 도}가 양립할 수 없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의 현상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도 남아 있다. 예컨대

조사의 출현 제약을 설명할 때 전경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전경성을 통한 설명을 적절히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로 전경성이 조사의 배열을 같은 자리에 부여하는 요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지니고 있는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경성과 전경 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여전히 그간 난제로 여겨졌던 문제에 대해 하나의 설명 방식을 추가했다는 작은 의미만큼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고동현(2020), 『한국어 조사 중첩에서의 보조사의 관여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2016), 「‘만’과 ‘도’의 이차 의미 - 전제인가 고정함축인가」, 『언어학 연구』 41, 135-155.
-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언어학』 23, 47-78.
- 목정수(2015), 『목정수 교수의 색다른 한국어 문법 강의』, 한국문화사.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으면서, -느라고, -고서, -자마자’의 의미 기술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22, 73-94.
- 박진호(2015), 「국어학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375-435.
-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기능」, 『진단학보』 82, 217-235.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
- 임동훈(2012), 「은/는과 중형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217-271.
- 임동훈(2015), 「보조사의 의미론」, 『국어학』 73, 335-371.
- 한정환(2012), 「의미역 조사 ‘가’, ‘를」, 『한국어학』 54, 1-54.
- 홍사만(1986), 『국어특수조사론』, 홍문사.
- 황화상(2003), 「조사의 작용역과 조사 중첩」, 『국어학』 42, 115-140.
- Cruse, Alan D. (2000), *Meaning in Langu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rteschik-Shir, Nomi & Shalom Lappin (1983), *Under Stress: A Functional Explanation of English Sentence Stress*. *Journal of Linguistics*, Vol.19, No.2,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9-453.
- Koev, Todor (2018). *Notions of at-issueness*.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12(12), 1 - 16.
- Langacker, Ronald W. (2008), *Cognitive Gramm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yrett, Kristen & Todor Koev (2015). *Experimental evidence for the truth conditional contribution and shifting information status of appositives*, *Journal of Semantics* 32, 525-577.
- Talmy, Leonard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ume II*, MIT Press.
- Yang, In-Seok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어학연구』 9(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84-122.